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무엇을 내놓을 건가

기도 중에 한 이상을 보았다. 누군가 나에게 ‘걸어온 길을 보여주세요.’라고 하자 나는 아주 두꺼운 앨범을 그에게 내밀며 ‘이것이 내가 걸어온 길이네.’라고 말했다. 그 앨범에는 한 명의 성도를 놓고 시작했던 목회 초년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장면들이 사진으로 정렬되어 있었다.

나는 생각이 깊었다. ‘그래, 누구나 주님 앞에 설 거고, 그때 주님이 내 걸어온 길을 보자고 하시겠지. 그때 나는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 요즘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에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라는 가사가 있듯이,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무엇을 내놓을 건인가?’를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한시를 쉬지 못한다. 그래서 이 나이에 지구 반 바퀴를 돌아 코스타리카까지 갔던 것이고,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을 몰아치는 것이다. 부지런히, 열심히 뭔가 작품을 만들어야 하니까. 그렇다. 인생은 내가 만드는 작품이요, 내가 쓰는 자서전이다. 작품이든 자서전이든 명작이 되려면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다면 어떤 작품이 명작일까?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것?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것?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 물론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주님의 평가 포인트는 세상과는 다르다. ‘얼마나 주님을 위해 일했느냐’이다. 돈을 벌고, 출세하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주의 일을 위한 초석이 된다면 두말할 것 없이 좋지만, 그것이 주(主)가 되어 그것으로 누리고 혼자 배부르다면 그 작품은 졸작이고, 그래서 폐기될 것이다. 내 작품의 주인공, 심지어 내 자서전의 주인공마저도 주님이어야 한다. 그분을 위한 삶, 그분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야 그날 후한 평가를 받게 된다.

만일 천국이 없다면 나는 이렇게 살지 않는다. 그러나 그날이 있기에, 그날 평가가 있기에, 그리고 상과 면류관이 있기에 이 길을 가는 것이다.

“네가 걸어온 길을 보여주렴.” 주님이 말씀하실 때 당당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멋진 작품을 내놓자. 그러려면 오늘, 지금 어찌 살아야 할지 생각해보라.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라

10년 만에 다시 찾은 코스타리카(Costa Rica). 공항에 나온 라파엘(Rafael)목사와 성도들이 마림바(Marimba)를 연주하며 따뜻하게 환영해주었다. 집회가 열릴 도시는 수도 산호세(San José)에서 차로 약 1시간 거리인 알라후엘라(Alajuela)주 그레시아(Grecia), 숙소로 도착하니 여독이 내려앉았지만, 라파엘 목사가 정성을 다해 준비한 숙소는 숲에 둘러싸여 물소리와 새소리가 들리는 매우 자연 친화적인 장소였다(관련기사 4면).

이튿날 라파엘 목사 교회를 방문했다. 120명 성도 규모의 작은 교회였지만, 성도들은 매우 뜨거웠다. 목사님은 누가복음 16장 10절을 읽어주시며 지극히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성공의 첩경

인데, 6년 된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 더욱 소름 돋는 일은 목사님이 아침에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소경을 두 번 안수한 사건을 언급하셨는데 데자뷔처럼 같은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목사님도 예수님처럼 두 번 안수하셨다. 소경이 눈을 뜨는 역사가 도착 첫 예배부터 나타났으니 우리는 물론 라파엘 목사나 그곳에 모인 성도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이는 집회의 대성공을 알리는 신호탄이 아닐 수 없었다. 목사님께서 한국에서부터 이번 코스타리카 집회에 전대미문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의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오전에 사전점검 차 집회 장소를

시는데 벌써 회중 가운데 귀신이 드러나 요동하기 시작했고, 설교를 계속 이어하실 수 없을 만큼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요동했다. 그레시아 사람들은 생전 처음 목격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에 놀라는 표정이 역력했고, 둘째 날에는 소문을 듣고 몰려온 이들이 두 배는 되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바로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 이 시간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며 간절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복이 임하니, 이제부터 여러분 가운데 오신 성령, 그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명령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뿐 아니라 예수님보



2025 코스타리카 그레시아 집회 광경

이라고 가르치셨다.

“성공하려면 대중이라는 군부터 잡아야 합니다. 작은 일이라고 건성건성, 대중대중 하는 자세로는 결코 큰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나는 누가복음 16장 10절을 내 목회의 좌우명으로 삼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여러분이 비록 소수의 무리이지만 최선을 다해 광고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면 이 집회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설교 후 통성으로 기도하며 안수해주셨

방문했다. 트러스가 올라가고 LED 스크린을 좌우로 세팅하며, 의자를 끄는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목사님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일꾼들을 모아놓고 격려했다.

“여러분들을 보니 마음이 든든하다. 여기 있는 사람들만 힘을 합해도 얼마든지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꿈을 크게 갖고 라파엘 목사를 도와 한번 코스타리카를 성령으로 뒤엎어보자.”

처음에는 전력이 달려 조명이 나가는 일도 있었지만, 그런 사소한 일들조차 신경 쓸 겨를조차 없이 성령의 대역사가 나타났다. 목사님이 단에 올라 인사 말씀을 하

다 더 큰 일을 하는 요한복음 14장 12절의 역사를 이루어보시다. 예수를 믿는다면 지식이 없어 귀신의 밥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좋은 가졌으나 총알이 없이 빈총으로 품만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총알을 주러왔으니 성령으로 무기로 기도하여 성령충만을 받고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여 전대미문의 기적을 맛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은 집회 후에도 단상 아래로 내려가 일일이 안수해주셨다. 코스타리카에 성령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대는 현상이었다.(다음 주에 계속) **한은택 목사**



6년 된 소경이 눈을 뜨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라’ 외치시는 목사님



성령의 대역사가 나타난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막7:1~14)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으로 가득하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요4:23~24).

이 말씀은 우리 교회 예배 서두에 장로님들이 꼭 낭독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매번 낭독할까요? 이는 ‘예배 드리는 대상은 누구인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를 밝히기 위함입니다. 옛말에 ‘밤새 울고 누가 죽었냐’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어떤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의 내용이나 영문을 모르고 맹목적으로 하는 행동을 비꼬는 말입니다. 성도 중에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주체가 누구인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도 모르고, 목사님한테 눈도장이나 찍으려 하고, 자기 충만으로 신나게 봉사하고, 자기 감성에 취해 찬양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는 헛된 예배입니다. 헛된 예배가 있냐고요? 있다가다요.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이 둘 다 예배를 드렸지만,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여러분,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요4:23). 우리가 예배드릴 분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기로 작정하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배드릴 때 주객이 전도(主客顛倒)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중시하던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고 전통적인 가치관을 뒤엎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들을 파견하여 눈을 부릅뜨고 빌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식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옳다구나’ 생각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대대로 내려오는 장로들의 유전을 들이대며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

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막7:6~8).

예수님은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전통을 지키느라 정작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는 것이고, 그들은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시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각종 유전들과 전통들을 철저히 고수하며 그것에 매여 형식 위주의 예배로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고르반이 대표적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

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막7:6~8).

예수님은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전통을 지키느라 정작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는 것이고, 그들은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시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각종 유전들과 전통들을 철저히 고수하며 그것에 매여 형식 위주의 예배로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고르반이 대표적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



총회장 이초석 목사

영양실조에 걸리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다 있습니다. 세상 책 모조리 섭렵한다고 해도 성경 한 구절만 못합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는 진리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요’(히4:12),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며’(딤후3:15~17),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와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와 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시19:7~8).

제가 신학생에게 ‘성경 한 권의 사람이 돼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성경 한 권만 통달하면 세상사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 15:31) 한 것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빌3:4~6)였던 그가 틈만 나면 스멀스멀 올라오는 자신의 지식과 이론을 버리고 율법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늘 자신과 싸운 것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과의 견고한 진임을 알았기에 파하기 위해서였습니다(고후10:4).

세상 것들로 영혼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것들로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죄사함

받고 더욱이 천국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는 방법, 약한 자가 강해지는 방법, 세상을 이기는 방법, 사랑하고 용서하는 방법... 성경에는 이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탐구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주의 종을 통해 배운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 하나님이 열납하는 예배를 드려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며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집에 오시니 마르다가 바쁘습니다. 예수님께 맛있는 걸 해드리려니 분주합니다. 마음은 기뻐하지요.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이를 본 마르다가 예수님께 마리아가 자기를 좀 도와주도록 내보내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예수님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눅 10:42)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봉사하느라 예배를 등한시하는 경우입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 전심으로 예배에 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마르다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마음이 이쁜 것이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배가 시작되면 밖에서 안내서는 자들도 다 들어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보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禮拜)란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이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얼마나 좋으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죠?”라고 말하는 것도, 위십을 하고 나면 ‘하나님, 기쁘시지요?’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들으라고 성가대가 찬양하는 게 아니지요. 사람 보라고 위십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영과 진리로 합당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사 그분의 기쁨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은혜로 나타나도록 합시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여호와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뜻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시29:2). 할렐루야!

:: 객원컬럼 ::

경험자의 말을 따르는 게 지혜다!

대방 교육관 공사 때의 일이다.
어느 날, 이시대 목사님께서 현장을 찾으셨다. 마침 칸막이 공사가 한창일 때였다. 현장을 점검하시면서 봉사자들을 일일이 격려하시던 목사님께서 지나가는 말로 ‘샌드위치 판넬 주위에서 용접할 때는 항상 사람을 붙여 뒤서 화재를 대비하라’고 한마디 하셨다.
사실 봉사자가 많지 않아서 사람 손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현장 경험이 많으신 목사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길 수 없어, 즉시 보조 교사 하나를 용접 감시역으로 배치했다.
그런데 그러기를 불과 두어 시간이나 지났을까? 다른 현장을 둘러보고 나오다 마침 용접 현장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교사가 ‘이게 뭐죠?’ 하는 것이다. 살펴보니 아주 미세한 연기가 칸막이 사이로 조금씩 새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순간, ‘불이다, 물러서라!’ 외치며 불길을 잡으려 뛰어들었다. 그때 마침 주위에 계셨던 김창욱 장로님도 그 소리를 들으시고는 소화기를 들고 달려와 같이 화재를 진압하였다. 정말 간발의 차이였다! 사고는 한순간,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순간이 아닐 수 없었다.
용접할 때 발생하는 불뿔이 튀어 우레탄(스티로폼)에 옮겨붙으면 곧잘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순식간에 번지기 때문에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2008년 이전 냉동창고 공사장

화재 사건을 보라. 조립식 판넬 용접 공사 중에 발생한 불이 정말 삼시간에 현장을 태우고 생떼 같은 40명의 목숨을 앗아가지 않았던가! 며칠 전에 부산 모 호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또한 용접 작업 중 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은 원인이 컸다고 하질 않나! 그로 인해 6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고통을 겪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 경험자의 말은 무조건 따르고 보는 것이 지혜다! 현장 경험이 풍부하신 목사님의 말을 흘려듣지 않고, 현장 경험이 많으신 장로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일을 잘 수습할 수 있었던 것이다.
‘面從腹背(면종복배)’라 했다. ‘겉으로는 따르는 척을 하나 속으로는 배신한다’는 의미다. 조언을 들을 때 겉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진심으로 새겨야 함을 경계하고 있는 가르침이라 하겠다. 잠언 12장 15절에서 솔로몬 또한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권면한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인생 선배가 건네는 한 마디를, 전문가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이 참 지혜가 아닐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잠29:1).

신현명 목사
yeddo1@hanmail.net

:: 세상을 보는 창 ::

끝인가, 아니면 끈인가?

작가(作家)가 마침표를 찍기까지 아무리 길어도 문장은 끝난 것이 아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생(生)의 마침표가 있기까지 이런저런 부호로 삶은 이어져간다. 누가 그 마침표를 찍는가? 인생의 작가이다. 류시화 시인의 책 가운데는 “신이 원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는 아주 적절한 제목을 가지고 있다. 인생의 유일한 작가는 지혜도 사랑도 능력도 무한하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다.
성경에 보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종결자인 양 삶의 마침표를 스스로 찍으려고 했던 사람이 있다. 로렘 나무 아래 엘리야다. 물론 로렘나무 아래에서의 그의 형편은 지치고 어려운 시간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의 이전 삶에는 이미 그릿 시내, 사르밧, 갈멜산 등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높고 깊은 위기의 장소와 시간들이 있었다. 그에 비하면 로렘나무는 작은 등성이일 뿐인데 엘리야는 거기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탄식하며 뉘두리를 한 것이다. 그러나 작가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끝이 거기가 아니라며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시고 멋지게 더 사용하시다가 죽어도 없이 하늘로 이끄셨다.
“내게 있는 모든 고난은 허락된 하나님의

뜻/ 거친 광야를 지날 때 더욱 낮아지게 하소서/ 환난의 바람 불 때에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나 비록 벼랑 끝에 있다 해도 희망의 끈 놓지 않게 하소서/ 내게 있는 모든 고난과 시련이 사랑임을 알게 하소서~”
‘허락된 고난’이라는 복음 찬양이다. 그렇다. 우리의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그 허락된 모든 고난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선한 계획을 가득 담고 있다.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니 인간의 벼랑 끝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희망의 끈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떨어져 추락하라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벼랑에서 멋지게 날아오르면서 더 변화된 모습으로, 더 풍요로운 관점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살라고 잠시 벼랑 끝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자문해보자. 이 고난은 불행하게 닥친 우연인가?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다! 이 고난은 나의 벼랑 끝인가? 아니다. 새로운 일이 펼쳐질 하나님이 주신 희망의 끈이다!

이정금 전도사
jungkm@nate.com

:: 영생에 이르는 길 ::

목사님의 일이 곧 우리의 일

2025년 총회장 목사님의 해외집회가 코스타리카를 시작으로 다시 진행된다. 천금을 준다고 해도 인간적으로는 가고 싶지 않은 고통스러운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왜 그렇게 멀고도 험한 길을 스스로 채찍질하며 다니실까?
모든 집회는 영적인 전쟁이다. 전쟁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전쟁은 이겨야만 살아남는 싸움이기 때문에 목사는 선봉에 서서 진두지휘하며 전장을 누비고 계신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뒤에서 기도도 그 전쟁이 승리하도록 보급을 해야 한다. 전투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끊임없는 무기과 식량, 보급품을 지원하는 일이다. 우리는 뒤에서 보급을 담당하는 병참부대인 것이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하는 장면이 나온다. 여호수아가 전장에 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치열하게 싸울 때,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한다. 모세가 피곤하여 기도가 약해지면 이스라엘이 지고, 모세의 기도가 승하면 이스라엘이 이기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아주고 끝까지 기도를 도왔다. 그러자 마침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된다. 목사님이 해외에서 영적 전쟁을 치를 때마다 우리는 모세를 돕는 아론과 훌이 되어야 한다. 모든 집회를 성공하고 승전보를 울리며 무사 귀환하는 그날까지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한다. 목사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승리다. 또한 전쟁에 승리하면 획득한 전리품을 헌신한 모든 자들이 누리듯, 목사님이 받을 상을 함께 지원한 우리도 누리게 될 것이다. 목사님과 집회의 성공을 위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이다.

최성경 전도사



:: 소망의 언덕 ::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축복

고3 친구들과 속초로 졸업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눈 덮인 산과 눈이 시리도록 파랗고 맑은 동해를 보면서 다들 기뻐합니다. 이들은 앞으로 펼쳐질 일이 설레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많이 부담스러울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수많은 선택지가 자신 앞에 놓여있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미래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저녁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다”(시25:12)라는 말씀이였습니다.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경외하는 것은 사랑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다”라는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점쟁이들이 말하듯 ‘동쪽으로 가시오’, ‘서쪽으로 가시오’,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 그의 선택지에 소돔과 고모라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웠기에 그곳이 사람 보기에는 좋은 곳이었을지언정 아브라함은 먼저 배제했습니다.
다윗도 최대 정적 사울 왕을 눈앞에서 처단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에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다윗의 선택지에 없었습니다.
왜 총회장 목사님은 모든 선택에 거리낌이 없어 보일까요? 애초에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치를 떨며 거부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만은 두려워하시기 때문에 목사님은 여러 선택지 앞에 늘 자유함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선택지가 놓입니다. 이때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꺼려지는 것부터 삭제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이게 되고, 그것이 마침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현승 목사

전대미문의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라파엘 목사 가족과 함께



숙소에서 식사를 준비해준
플로리&안드레아 집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먼 여행을 떠나온 전도자로서 그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모습을 발견하는 기쁨은 그 전도자만의 남모르는 양식일 것이다. 우리가 코스타리카(Costa Rica) 도착 첫날부터 불과 며칠 사이에 숙소에서 일어난 일은 복음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생명력이 있는지 확인하게 되는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천혜의 자연이 잘 보존되어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코스타리카답게 우리가 도착한 숙소는 문밖으로 몇 발자국만 나가도 수령이 족히 수백 년은 된작한 나무들이 하늘로 뻗어있고, 그 사이에는 각양각색의 꽃들과 나무들이 자라다 못해 흐드러져 있었다. 그리고 계곡을 따라 흐르는 물소리며, 희귀한 새들의 지저귀, 밤이면 검은 하늘을 가득 메우는 별들까지, 한국과 15시

간 시차인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왔지만, 다른 시간, 다른 장소, 과장해서 말하면 마치 다른 우주에 있는 느낌이었다. 이번 집회를 배설한 라파엘(Rafael) 목사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듯 최고의 정성으로 목사님과 우리 일행을 대접해주었다. 도심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 위치한 아름다운 펜션을 통째로 전세 내어 전담 요리사까지 두고 때마다 맛난 음식을 제공해주었다. 워낙 자연환경을 좋아하시는 목사님은 식사 때마다 입으로 먹는 즐거움보다 눈으로 먹는 기쁨에 찬탄을 금치 못하셨다. 더군다나 목사님이 꽃을 좋아하신다니 아침이면 꽃을 준비하여 식탁에 올려놓고 심지어 과일 접시에도 예쁜 꽃과 잎사귀로 장식하곤 했으니 무슨 말을 더할까. 목사님은 도착 첫날, 늦은 저녁식사를 마치고 라파엘 목사 가족과 요리하는 두 집사를 위해 기도해주셨다. 장이 안 좋더라 라파엘 목사가 특별히 기도해줄 것을 요청한 플로리(Flory) 집사는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대기 무섭게 요동하자 귀신을 쫓으며 안수해주셨다. 또한 구석 소파에 조용히 앉아있던 안드레아(Andrea) 집사를 불러 원하는 것이 무엇이나 묻자 갑자기 한숨을 푹 쉬며 주저앉더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뭐라 말하는데 잘 들리지 않아 이 선교사가 재차 묻자 간신히 대답했다. 동성에 문제로 괴롭다는 것이다. 죄

를 인식하면서도 어찌지 못해 괴로워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목사님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죄를 회개한 그 영혼이 빛 가운데 자유함을 얻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주셨다. 먼 나라에서 온 하나님의 종에게 담대히 죄를 고백하는 그녀의 모습이 아름다웠다. 목사님은 안드레아를 끌어안으시며, “동성애자라고 돌을 던지고 정죄만 해서 되겠는가? 그 영혼이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셨다. 죄를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용기는 이미 죄사함을 받을 준비가 마련된 것 아니겠는가. 라파엘 목사의 아내 헤이셀(Hazel)은 어린 시절 부모가 버리고 떠나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했다.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목사님의 따뜻한 마음을 대하니 목사님이 아버지였으면 좋겠다고. 목사님은 코스타리카에 딸이 생겼다고 웃으면서 라파엘 목사에게 무엇보다 가정을 화목하게 잘 이끌어야 함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사모 헤이셀의 반응이 냉랭했다. 목사님 앞에서야 알겠다고 하지만 믿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어린 시절의 아픔을 신앙으로 견디며 만나 가정을 이루었지만 남편이 그런 아픔들을 메워주지 못하는 듯 보였다. 목사님은 라파엘 목사에게 거듭 다짐을 받으시면서, 사모에게도 이전 남편의 결단을 믿어야 한다고, 남편이 사랑해준다는 긍정적인 생각과 말로 네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목사님은 이번 집회에 동참하지 못한 김성자 전도사 대신에 사모가 뒤에서 찬양

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시고, 의사가 되겠다는 딸 발렌티나(Valentina)를 격려하시며 이 가정이 전대미문의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주셨다. 기도하는 동안 헤이셀 사모와 발렌티나는 연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언제나 아름답고 감동적이다. 헤이셀 사모가 목사님을 빠빠(Papa)라고 부르자 라파엘 목사는 졸지에 사위가 되었다며, 2년 전 페루(Peru)에 가서 목사님을 빠빠로 삼았으니 자기가 우선권이 있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이미 대세가 기운 마당에 목사님은 사모를 딸로 삼겠다고 하시는 순간 모두 한바탕 폭소가 터졌다. 라파엘 목사가 무슨 말만 하면 사모가 목사님께 이르고, 이 선교사는 ‘으이그’하며 목사님 말씀 잘 들으라고 통역해주었다. 이 선교사가 ‘으이그’ 할 때마다 라파엘 목사는 기가 짝 죽어서는 수줍게 웃는 모습에 또다시 모두 한바탕 폭소가 터지곤 했다. 얼굴이 환하게 꽃처럼 핀 헤이셀 사모를 보며 목사님은 더없이 기뻐하셨다. “집회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전대미문의 기적을 일으켰다. 한 가정이 복음으로 살아나고, 고통 가운데 있던 저 집사가 죄를 벗고 새로워지는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일 그냥 떠나도 우리는 할 일을 다한 셈이다.” 축복된 날씨와 아름다운 환경,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영혼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린다.

한은택 목사

:: 주님을 향하여 ::

두 마리 개구리

여기 한 무리의 개구리가 숲속을 지나가고 있다. 그러다 그중 두 마리가 그만 깊은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다. 웅덩이가 너무 깊음을 위에서 내려다본 다른 개구리들은 웅덩이에 빠진 개구리들에게 나을 수 없을 것이라고 소리쳤다. 처음에는 두 마리 모두 개구리들의 외침을 무시하고 웅덩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도 웅덩이 밖으로 빠져나올 수 없었고,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개구리들은 다들 헛수고라며 말했다. 그러자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빠져나오기를 포기하고 더 깊은 웅덩이 속으로 뛰어 들어가 그냥 죽는 편을 택했다. 하지만 나머지 한 마리는 계속해서 뛰기를 멈추지 않았다. 뛰어오르느라 벽에 부딪혀 피를 흘리기도 했고, 더 깊은 웅덩이로 미끄러지기도 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다른 개구리들은 더 이상 다치지 말고 뛰는 것을 멈추라고 소리쳤다. 그들 생각에는 편하게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한 마리는 다른

개구리들의 말을 무시한 채 더 높이, 더 욱더 높이 뛰었다. 그렇게 쉬지 않고 뛰어오르던 개구리는 결국 기적처럼 웅덩이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너무나 놀란 나머지 개구리들은 그 개구리를 에워싸며, 자신들이 뛰지 말라고 한 말을 들었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개구리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알고 보니 그 개구리는 귀가 들리지 않았다. 귀먹은 개구리는 자신에게 소리치는 다른 개구리들을 보며, 어서 웅덩이에서 빠져나와 살아남으라고 외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살면서 역경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시선과 생각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결국 이야기 속 개구리들의 생사를 가른 것은 ‘생각’이었다. 벗어날 수 없을 거라 여긴 개구리는 생각대로 죽음이 임했고, ‘헛수고’라며 만류하는 소리를 오히려 살아남으라는 격려로 여겼던 개구리는 ‘웅덩이’라는 역경에서 벗어났다. 이렇듯 생각의 차이가 실상은 인생을 좌우하기도 한다. 아마도 살아남은 개구리에게는 앞으로 뛰어오

르지 못할 깊은 웅덩이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어떠한 역경과 실패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내적인 힘과 삶의 자양분이 되는 ‘생각’을 얻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귀가 들리지 않는’ 장애가 개구리를 살리는 조건이 되었다는 것이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 삶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여겼던 조건이 오히려 살리는 조건이 되는 경우는 많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다는 오프라 윈프리는 세상의 불운을 다 가지고 태어났다. 흑인, 사생아, 미혼모, 성폭행 등 그녀의 불운은 차마 입에 담기에도 힘든 것들이다. 하지만 그녀는 세상은 불공평이 아니라 되레 공평하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개척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자신의 불운을 극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의 삶을 불운하게 만들었던 조건들을 오히려 역동적이고 풍성하게 만든 조건으로 바라본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라보

라는 총회장 목사님처럼 말이다. 항상 ‘역경’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살아가면서 예고 없이 찾아올 많은 문제들을, 자기 자신의 내적 성장의 기회로 볼 수 있다면 더 이상 ‘역경’은 우리 삶을 불운하게 만드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뿐이다. 역경을 통해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모든 것이 해결되고 인생에서 꽃피는 날이 올 것이다. 다만 그 역경을 지나는 동안 극복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는 스스로에게 달려있다. 역경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은 늘 우리 내면에 들어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힘들지 않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보면 힘들었던 만큼 행복했고 즐거웠음도 깨닫는다. 우리는 편한 것은 금방 잊어버린다. 하지만 어려웠던 순간은 그만큼 아픔이 있었기에 오래도록 기억한다. 오래도록 기억될 ‘가치 있는 생각’을 갖자!

박영임 전도사
jjambballqueen@naver.com